

# 엿듣는 이의 존재가 의사소통과정에 미치는 영향<sup>1)</sup>

이희란, 이승복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엿듣는 이의 변인을 알아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엿듣는 이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시자와 대화자가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엿듣는 이가 친숙한 이인지 아닌지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였다. 실험 1에서는 두 사람(지시자와 대화자)이 서로 대화를 하여 무의미 그림 12장을 똑같은 순서로 배열하는 동안, 엿듣는 이는 대화 내용을 엿듣기만 하고 그림의 순서를 배열하였다. 엿듣는 이는 대화의 모든 과정을 들었지만 대화자보다 수행이 떨어졌으며 엿듣는 이가 있는 집단의 대화자들이 엿듣는 이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데 시간이 더 걸렸고, 대화에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과제에서 대화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엿듣는 이의 존재가 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2에서는 지시자와 엿듣는 이가 친숙할 경우 수행 정도에 미칠 수 있는 차이에 대한 두 가지 대안적인 가설, 공통배경 공유가설과 친속도 유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 보았다. 실험 결과, 두 조건에서 대화자는 수행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통배경 공유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시자는 대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배경을 고려하므로 구태여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본 실험의 결과는 같은 정보를 듣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자인 대화자와 엿듣는 이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의 협동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을 시사하여 언어에 대한 상호적 접근에 한 가지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엿듣는 이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친숙성이 의사소통에서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공통배경 공유가설이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언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심리학과 발달심리학자, 그리고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들은 주로 의사소통 자체보다는 문장의 처리과정에 중점을 두거나,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 곧 한 개인 내에서 어떻게 언어가 처리되고 이해되는가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접근이 전통적 접근 방식인 개인적 접근(individualist approach)이다. 말하자면 듣기와 말하기의 과정이 개인의 어떠한 심적 활동(mental activity)을 통해 이루어지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내적 활동보다는 언어 행위가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에서, 대화과정과 그것이 갖는 고유한 어려움들을 대화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해가는가 하는 활용적 측면에서 언어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점이 상호적 접근(interactionist approach)이다. 언어, 특히 의사소통에 관한 상호주의적 접근은 어떻게 대화에서 협동적으로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대화(dialogues)와 혼자말(monologues)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다른가? 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갖는 개인적 특성이나 역할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대화에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1) 이 논문은 이희란의 석사학위 논문을 다시 쓴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에 관한 상호적 접근에 기

초를 두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밝혀진 의사소통에 관한 중심적인 주제는 그것이 개인의 내적 활동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의사소통 의도는 대화 당사자들이 갖는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은 서로의 의도를 공유하기 위해 협응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관한 초기의 이론은 부호화 모형(code model)이라고도 불리는 전달과정 모형(message model)이다. 즉, 전달자는 내용 자체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것인지를 부호화(encoding)하고 그것을 소리라는 전달체계를 통해 내보낸다. 그러면 수용자는 그것을 다시 재해석(decoding)해서 내용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전달과정 모형이다. 그러나 이 과정만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떤 표현들은 그 자체가 아주 모호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참조(reference) 자체로는 표현되지 않는 내용도 있다. 또한 모순된 내용이나 은유적인 표현들, 추상적인 의미, 비직접적인 요청 등에 대한 말하는 이의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는 전달 과정 모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끌어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의 상황적인 맥락 또한 이 모형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은 전달과정 모형에 추가되는 어떤 과정을 더 필요로 한다. 말하는 이의 의사소통 의도를 듣는 이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신념(beliefs)과 추론(inferences)을 공유하여야 한다. 전달 체계인 소리와 의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바로 추론이다. 즉, 듣는 이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내용을 재인한 후, 주어진 발화의 맥락에서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

말하는 이가 갖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추론만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이는 대화 도중에 말을 스스로 수정(self-re-

pair)하기도 하므로 듣는 이는 한 번에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없다. 대화에서 사람들은 차례로 주고 받기(turn taking)라는 복잡한 체계를 통해 어느 때 누구에게 얘기해야 하는지를 조정(manage)한다. 또한, 말하는 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한 것을 “으응”, “그래”, “아--”와 같은 통로 반응(channel responses)를 통해 알린다. 듣는 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또는, 제 3자가 등장했을 때, 대화자들은 확신이나 정확도에 방해를 받지만 대화 참여자들은 또한 그들 안에 주제나 대화를 중재하고 이끌고 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대화를 이끄는 가장 중심적인 과정은 협응(coordination)이다.

A와 B가 한 사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이론에 따르면 참조대상(reference)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A와 B가 서로 그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정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공통배경(common ground-상호 지식, 상호 신념, 상호 가전)이다. 서로 대화에 참여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줌으로써 공통배경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배경은 대화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나 소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공동체적(communal)인 정보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대화에 참여하는 두 사람이 경험했거나 공유하는 아주 개인적인(personal) 정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Clark & Marshall, 1981).

의사소통에 관한 현재까지의 접근은 의사소통이 결코 개인적 접근에서만 연구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의사소통은 서로가 가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배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최근에 의사소통의 상호적 접근에 근거하여 소통 내용의 공유과정에 대한 실험적 연구들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Krauss and Weinheimer, 1964, 1966, 1967 ; Krauss & Glucksberg, 1969, 1977 ; Glucksberg, Krauss, & Higgins, 1975 ;

Carroll. 1985 ; Clark & Wilkes-Gibbs. 1986 ; Schober & Clark. 1989).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참조 행위(referents)를 연구 주제로 다루었다.

이들 실험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연구 방법은 대개 대화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 쉽게 언어화하기 힘든 무의미 그림을 참조하는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것인데, 대화자들은 처음에는 길게 서술하다가, 서술 문장이 조금씩 줄어들어 나중에는 한 두 단어로 짧아진다.

Krauss and Weinheimer(1964)는 이렇게 대화 길이가 짧아지는 과정이 수용자가 내보내는 되보내기 통로 반응(back-channel response) - "네", "그래", "알았어" 등- 에 의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반응에 포함된 정보가 있어야만 전달자는 수용자가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되보내기 통로 반응은 대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배경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되보내기 통로 반응이 점차 줄어들면 전달자가 무의미 그림에 대한 언급을 줄이는 비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들은 대화 당사자 두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6개의 무의미 그림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시한 후 두 사람의 대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지시자(director, 말하는 이)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대화자(matcher, 듣는 이)에게 자신이 가진 것과 같은 순서로 무의미 그림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 맞추기의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하도록 하였다. 결과 대화자가 하는 반응(feedback)으로 인해 설명 과정이 반복될수록 참조 행위는 짧아졌으며, 대화자가 같은 그림을 찾아내는 데 걸린 시간과 어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는 지시자와 대화자 간에는 지시자가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에 기초하여 무의미 그림을 보는 관점에 대한 공통기반이 형성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Clark & Wilkes-Gibbs(1986)는

의사소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실험을 하였다. 이들은 탠그램(tangram)이라는 무의미 형태가 담긴 12장의 그림을 이용해 두 대화 참여자에게 지시자와 대화자의 역할을 맡도록 하여 지시자의 설명에 따라 대화자가 두 사람이 각각 갖고 있는 그림들의 순서를 똑같이 맞추어 가도록 하는 실험 상황을 만들었다. 참조(reference)의 협동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과제에 대해 몇가지 예언을 할 수 있다. 두 대화 당사자는 첫 시행에서 우연적이고 불명확하며 비표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어떤 형태에 직면하게 되지만, 같은 형태에 대하여 참조적 서술을 되풀이하면 설명 방식은 점차 더 간단하고 표준적으로 되어 짧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Krauss와 Weinheimer(1964)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설명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모양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되묻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명사구의 수가 더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협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참조적 기술에서는 '의사소통 주고 받기'가 덜 사용될 것이며 따라서 사용되는 명사구는 보다 표준적일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

Clark & Wilkes-Gibbs(1986)의 실험 결과 그의 예언은 지지되었다. 실제로 12장의 카드를 지시자와 대화자가 맞추어가는 시행을 6회 반복하였을 경우, 첫 시행에 비해 나중 시행에서 두 대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주고 받기'의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전체 그림 짝맞추기에 사용된 시간도 시행이 계속될수록 줄어들었다. 그의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대화 당사자는 초기 시행에서 협동에 실패했을 경우 수정(repair), 확장(expansion), 대체(replacement)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는 명사구의 수를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시행 정도가 되면 형태가 갖는 유사성, 범주화, 속성, 행동 등에 대하여 다양한 설명 전략을 이용해 참조 대상인 그림 카드에 대한 공통의 가정을 가지게 된다. 즉, 참조하는 설명을 반복하면서 지시자는 협동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자세한 설명을 피하면서,

간단하고 전체적(holistic)이며 고정된(permanent) 설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용 분석을 통해 증명되었다.

Krauss and Weinheimer(1966)는 참조 과제에 대한 의사소통 실험에서 되보내기 통로 반응이 없는 조건을 비교해 본 결과, 되묻거나 주고받기가 없는 조건에서는 설명하는 사람의 어휘수가 더 많이 나옴을 발견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말하는 이의 능력이 수용자가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Kraut와 그의 동료들은 듣는 이의 반응이 말하는 이의 메시지가 갖는 의미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기제를 세밀히 관찰했다. 말하는 이들은 듣는 이가 표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듣는 이(active listener)일 때 이전 정보에 대해 제한적이고, 상반되고, 중요한 것을 말하거나 더 말을 바꿔하는 것 같았다. 반대로 듣는 이가 되보내기 통로반응을 하지 않고 수동적이면 이전 정보를 더 정교하게 말하려 노력했다(Kraut & Lewis, 1984). 그밖에도 지시자와 대화자가 의존하는 공통기반에는 공유하는 문화적 배경도 큰 위치를 차지한다. 즉, 두 대화 당사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나 지식에 근거하여 공통된 기반을 형성하므로 반복되는 설명에서는 참조가 더 짧아지게 된다.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도 메시지의 전달을 위한 일정한 구조화가 필요한데, 메시지 내용들 간의 관련성과 참조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구조화된 내용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도식에 근거한 이야기식 계열구조가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도 있다(이희란, 김유경, 이승복과 김영진, 1994). 이 연구는 참조적 과제에서 두 대화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그림과 관련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무의미 그림에 대해 공통참조를 만드는 경우, 이야기식 계열구조를 만들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개별적인

그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경우보다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Clark등의 탠그램 카드를 사용하여 실험하되, 이야기 조건과 표준 조건, 무처치조건으로 나누어 세 조건의 수행을 비교하였다. 이야기 조건에서는 각각의 무의미 그림과 관련된 일련의 계열적인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제시하였으며, 표준 조건에서는 그림 각각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준적인 설명들을 덧붙여서 제시하였다. 결과, 모두 4회의 시행을 반복하면서 무의미 그림을 이야기식 계열구조와 함께 제시했을 경우, 이야기식 계열구조와 무의미 그림에 대한 정보를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처리부담(communication load)으로 인해 대화 참여자들은 시행의 초반부에는 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그림 각각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준적 설명과 함께 무의미 그림을 제시한 집단보다 이야기 구조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집단이 후반부에서 수행에 걸린 시간이 줄어드는 정도가 훨씬 컸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이야기 구조가 갖는 도식에 근거해 이해의 촉진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의미 그림에 대한 의사소통이 좀 더 수월하지만, 대화 당사자들은 서로가 갖는 도식까지도 공유(common ground sharing)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자의든 타의든 그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엿듣는 이(overhearer, 제 삼자(第三者), 또는 어쩌다 듣는 사람)라 한다. 대화에서 직접적인 대화 당사자들(addressees)은 말하는 이와 함께 말해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의 공통신념에 접근하여 활발히 협동해 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이점을 갖게 되지만 엿듣는 이는 그렇지 않다. 초기의 의사소통 연구들은 모든 듣는 이들을 똑같은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즉 말하는 이는 듣는 이 모두를 위해 자신이 발화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만을 고려할 뿐이라고 가정하였다. 뒤이어 연구자들은 점차 대화 당사자

들이 상황에 적절하도록 어떻게 발화를 고안해내는지(design)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대화 당사자를 고려하는 발화에만 초점을 두었다(Austin, 1962; Grice, 1968; Searle, 1969). 그러나 옛듣는 이의 존재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옛듣는 이의 이해도와 함께, 말하는 이가 옛듣는 이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관련된 발화들을 어떻게 계획(design)하는지도 함께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한 실험에서, 말하는 이는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함께 본 적이 있는 카우보이 영화의 한 장면을 듣는 이에게 설명했다(Kraut et al., 1982). 듣는 이들은 한 집단에서는 표준적인 방식(normal fashion)으로만 반응하도록 허락 받았으며, 또 다른 집단에서는 되보내기 통로 반응을 못하도록(말하자면 옛듣는 이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실험 결과 듣는 이와 옛듣는 이는, 듣는 이 자신이 들은 내용에 대해 되보내기 반응을 더 많이 할 때 영화의 내용을 더 잘 이해했다. 또한 이해도에 관한 평가에서 듣는 이의 영화 장면에 대한 지식은 처음에는 옛듣는 이와 같았지만 설명 후에는 옛듣는 이보다 훨씬 나왔다.

Schober & Clark(1989)은 세 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잡한 모양의 무의미 그림이 그려진 12장의 카드를 배열하기 위한 설명을 하게 하고, 옛듣는 이도 똑같이 배열하게 하였다. 첫 실험에서 옛듣는 이는 두 사람의 대화 당사자들이 카드의 순서를 설명하고 맞추는 과정 전체를 녹음한 내용을 모두 듣거나 그 중 일부분을 듣거나 하였다. 실험 결과, 전체 내용을 모두 들은 피험자 그룹에서조차 옛듣는 이는 대화 당사자(addresses)보다 정확히 카드의 순서를 배열하는데 있어 정확도가 떨어졌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옛듣는 이를 실제 실험에 참여시켜 대화자와 비슷한 거리의 다른 곳에서 그림 순서 맞추기를 하게 하였지만 옛듣는 이의 수행이 대화자보다 떨어지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Schober & Clark(1989)이

주장하는 협동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똑같은 공통지식을 지녔어도 옛듣는 이는 대화에서 직접적인 협응으로 공통배경을 형성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는 단순히 발화된 내용을 듣고 부호화하여 해석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 배경을 만들어가는 협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Clark & Schaefer(1987)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학교사진 8장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인 두 실험 참여자에게 나누어 준 후, 또 다른 칸막이 뒤에 실험 참여자와는 무관한 옛듣는 이를 앉게 한 다음, 두 사람이 가진 사진의 배열 순서를 같게 하는 의사소통 실험을 하였다. 실험 집단에게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대화를 하게 했으며 통제집단에게는 옛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숨기기 조건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많은 단어수, 말 주고 받기가 사용되었다. 또한 정확도의 비율에 있어서도 숨기기 조건이 통제집단에 비해 수행이 더 떨어졌다. 대화에서 옛듣는 이가 있으면 자신의 발화에 대해 일정한 전략(logic)을 세우게 되며 그 중 하나로 두 대화 참여자가 친숙한 경우에는 옛듣는 이에게는 무관한 비밀용어(private key)를 사용해 두 사람만의 공통배경에 접근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행위(speech acts)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정보적(informative)'인 것이다(Clark and Carlson, 1982a, 1982b). 때로 말하는 이는 대화에 필요한 직접적인 참조 이외에도 여러 정보를 제공해서 공통배경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말하는 이는 대화에 직접 개입해서 공통배경을 형성하며 대화를 나누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정보적인 것의 의미다. 그렇다면 말하는 이는 실제로 대화 참여자 이외의 옛듣는 이에게도 정보적인 것을 제공하는가?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제삼자의 존재를 어

는 정도 인식하여 대화에 개입시키는 것일까? Clark은 이러한 내용을 이론적으로만 제시했을 뿐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해내지는 못했다. 그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참조에 관한 의사소통을 할 경우, 실제 대화 참여자보다 엇듣는 이의 수행 정도가 정확하나 이해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엇듣는 이를 대화에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숨기기 전략을 이용해 참조 대상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지시자와 대화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엇듣는 이를 위해 어떤 정보적인 것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엇듣는 이가 있는 의사소통의 경우 여러 관련 변인이 있을 수 있다. 지시자와 대화자는 다른 불특정의 엇듣는 이를 의식함으로써 목소리를 낮춘다든지 들만의 은어나 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Clark & Schaefer, 1987), 이러한 결과를 엇듣는 이가 없는 경우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엇듣는 이가 지시자와 공유하는 배경이나 갖고 있는 사전지식이 비슷할 경우, 곧 지시자와 엇듣는 이가 친숙한 경우와 공유하는 사전지식을 가정할 수 없는 친숙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지시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친숙한 엇듣는 이를 의식하여 그를 위해서 정보를 더 제공하려 한다면 지시자는 더 많은 설명을 할 것이고, 반대로 친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정보를 구태여 더 전달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지시자가 엇듣는 이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시자가 친숙한 엇듣는 이에 대하여 어떤 가정을 가지는가에 따라 지시자의 과제 수행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만일 친숙한 엇듣는 이에게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엇듣는 이와 지시자가 친숙한 조건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조건에서 보다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반면에,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친숙도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엇듣는 이가 개입한 의사소통 과제에서 엇듣는 이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대화 당사자인 지시자와 대화자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엇듣는 이가 없는 조건과 비교해 어떻게 다른지를 우선 알아보았다. 엇듣는 이의 존재가 의사소통 과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나서, 엇듣는 이의 변인, 즉 지시자와의 친숙도에 따른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가설은 지시자가 친숙한 엇듣는 이에 대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소통을 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 다음에 정리하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즉, 지시자가 엇듣는 이와 친숙하면 공통배경을 많이 공유했으므로 참조 대상에 관한 설명이 짧아져도 될 것이고, 이전에 형성된 공통배경에 기초하여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서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시자는 엇듣는 이를 비친숙조건보다 더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시자와 엇듣는 이가 친숙하면 지시자는 엇듣는 이를 더 많이 의식하여 지시자는 엇듣는 이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엇듣는 이는 아무런 파드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지시자 스스로 엇듣는 이를 의식하여 더 많이 설명해주려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가설, 즉 공통배경 공유가설과 친숙도 유지가설 중 어떤 것이 더 설명력이 있는지 적절한 실험상황을 제시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엇듣는 이가 지시자와 친숙한 경우, 친숙하지 않은 대화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가설을 다시 정리하여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공통배경 공유가설(common ground sharing hypothesis) :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는 서로 공유하는 공통배경을 갖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따라서 지시자와 엇듣는 이가 친숙하면 이전에 형성된 공통배경이

참조대상에 관한 서로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므로 참조 대상에 관한 설명이 짧아져도 의사소통은 가능하게 된다. 이를 공통배경 공유가설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시자와 엿듣는 이가 친숙한 조건에서도 지시자는 엿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도 단지 대화자와 함께 과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숙도 유지가설(familiarity maintenance hypothesis) : 지시자와 엿듣는 이가 친숙하면 지시자는 아무런 피드백도 요구할 수 없는 엿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화자 뿐만 아니라 엿듣는 이에게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친숙도 유지가설이라 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시자는 엿듣는 이가 친숙한 조건에서는 엿듣는 이가 친숙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일 것이다.

## 실 험 1

실험 1에서는 Clark & Wilkes-Gibbs (1986)가 사용했던 탠그램이라는 무의미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여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과제로 엿듣는 이가 있는 경우, 소통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집단 1은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그림의 순서를 똑같이 맞추어 가는 표준적인 소통 조건이었으며, 집단 2는 여기에 엿듣는 이를 포함하여 서로 모르는 세 사람 즉, 두 사람의 대화에 엿듣는 이가 개입하는 조건에서 주어진 소통 과제를 하였다.

이 실험은 Clark & Wilkes-Gibbs (1986)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단지 시행 수만 줄였다. Clark 등은 모두 6회 시행을 거쳤지만 마지막 두 번의 시행은 이미 두 피험자가 공통배경을 형성한 후였으므로 4번째 시행에 비해 시간이나 단어수의 줄어드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4회 시행까지만 반복해서 실시하였다.

## 방 법

피험자.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리학 개론」 수강생 중에서 여학생 40명이 피험자로 참여하였다. 집단 1은 2명씩 짝지어진 8그룹의 16명이었으며, 집단 2는 3명씩 짝지어진 8그룹 24명이었다. 피험자들은 서로 다른 강좌에서 한 쌍씩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 실험 시간을 미리 약속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관심사가 아니므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와 비슷한 실험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다.

자극. Clark & Wilkes-Gibbs(1986)가 실험에서 사용한 12장의 탠그램 카드(부록 참조)를 소통 과제로 하였다. 이 무의미 그림 12장은 Clark & Wilkes-Gibbs(1986)의 실험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탠그램(tangram)이라는 게임에 사용했던 몇몇 날개의 형태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만든 4000개의 그림 중에서 선택한 것들이었다. 또한 연습시행을 위해서는 Krauss & Weinheimer (1966)의 실험에서 사용한 6장의 무의미 그림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그림은 가로 15cm, 세로 7cm의 흰색 종이 위에 검은 색으로 그려진 카드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12장의 그림들은 다음과 같다.

### 절차.

집단 1 : 서로 모르는 피험자 두 사람은 미리 시간 약속을 한 후 실험실로 들어와서 실험에서 두 사람의 역할인 지시자와 대화자를 무선적으로 정한 다음 자리에 앉았다. 두 실험 참여자의 과제는 각기 달랐다. 지시자(말하는 이)는 12장의 무의미 그림 각각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었으며 대화자(듣는 이)의 과제는 지시자가 설명하는 그림을 다른 여러 그림 속에서 찾는 것이었다. 서로 마주 앉은 탁자 위에는 칸막이가 있어 두 피험자는 서로를 볼 수 없었다. 지시문을 통해 두 피험자는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한 시행이 끝나면 서로의 그림 순서를 정확하게 배열했는지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먼저 6장의 무의미 그림으로 연습 시행을 하였다. 뒤이어 12장의 탠그램 카드로 본 시행이 실시되었는데, 본 시행은 같은 과정을 4번 반복하였다.

두 사람의 피험자에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서로가 가진 카드의 순서를 함께 맞추도록 지시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전체 내용은 녹음이 되었고 각 시행에 걸리는 시간이 측정되었는데 피험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되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였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림의 순서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4회의 본 시행이 끝난 후에, 두 사람의 피험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지 혹은, 이전에 비슷한 실험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실험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묻는 사후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피험자쌍의 실험에 걸린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였다.

집단 2: 집단 1과 절차는 동일하였으며 단지 엇듣는 이가 처음부터 실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달랐다. 엇듣는 이는 지시자와 대화자가 탠그램 카드 12장의 순서 맞추기 과정을 함께 들었으며, 엇듣는 이 역시 대화자와 마찬가지로 그림

의 순서 맞추기를 하도록 하였다. 서로 마주 앉은 탁자 위에 지시자와 대화자가 서로를 볼 수 없도록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엇듣는 이 역시 다른 칸막이 너머에 앉도록 하였다. 피험자 세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세 사람의 역할 역시 무선적으로 정하였다. 엇듣는 이에게는 두 사람이 그림의 순서 맞추기 과정을 행하는 것을 단지 듣기만하고 대화자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찾으도록 지시하였다. 한 시행이 끝나고 지시자와 대화자가 그림이 정확한 순서로 찾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동안, 엇듣는 이의 수행도는 실험 보조자가 확인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절차는 집단 1과 동일하였다.

**설계.** 본 연구는 2(집단)×4(시행) 설계로, 독립변인 중 집단변인은 엇듣는 사람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이며 그에 따른 시행의 차이를 나누어 보았다. 종속변인으로는 짝맞추기에 걸린 반응시간과 어휘수,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각 시행에 따른 대화 시간과 어휘수에 따른 변량분석을 하였다. 엇듣는 이의 유무는 집단간 변인이며 4회에 걸친 각 시행이 집단내 변인이었다.

실험 1의 가설

가설 1. 무의미 그림을 순서대로 맞추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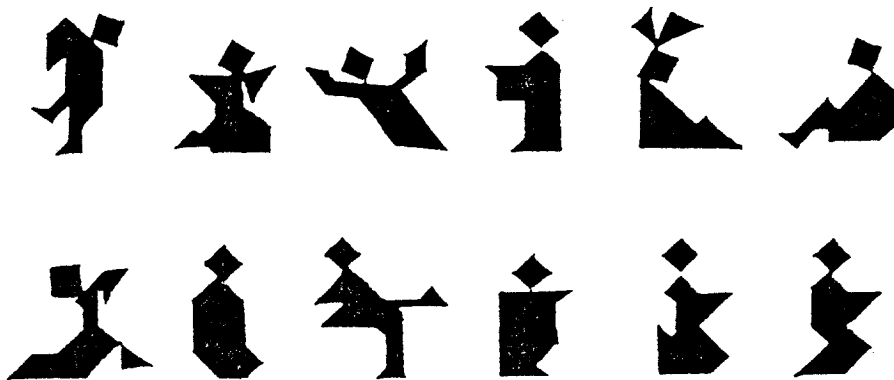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12장의 탠그램 카드.



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단어수는 두 집단 모두 시행이 반복될수록 점차 줄어들 것이다.

**가설 2.** 옛듣는 이가 있는 집단은 옛듣는 이가 없는 집단에 비해 과제 수행에 더 긴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단어수를 사용할 것이다.

**가설 3.** 옛듣는 이가 있는 집단의 경우, 옛듣는 이의 과제 수행 정확도는 대화자보다 낮을 것이다.

## 결과 및 논의

지시자가 설명하는 그림의 순서를 대화자와 옛듣는 이가 얼마나 정확히 맞추어 가는가하는 소통의 정확도와, 전체 그림을 맞추는데 사용된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지시자와 대화자가 정확히 그림을 맞추는데 사용된 단어의 마디수를 분석하였다.

### 1. 의사소통에 소요된 시간

옛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 옛듣는 이가 있는 두 집단의 시행에 따른 평균 수행시간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두 집단의 시행에 따른 평균 소요시간 (분: 초)

시행/집단	옛듣는이없음	옛듣는이있음	평균
1	4:04	4:32	4:18
2	2:29	3:11	3:21
3	1:22	2:34	1:58
4	1:01	2:26	1:39
평균	2:32	3:06	

변량분석 결과, 옛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 옛듣는 이가 있는 집단 모두 시행이 1회에서 4회까지 반복될수록 그림 순서 맞추기에 사용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두 집단 모두 시행에 따른 주효과가 의미 있었다( $F(3,42) = 106$ ,

$564, p < .001$ ). 이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두 사람은 서로 협동하여 공통기반을 형성하므로 시행을 반복할수록 좀 더 효율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또한 대화에서 순서를 맞추는데 사용되는 시간과 단어수는 두 집단 모두 시행이 반복될수록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실험 1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Clark & Wilkes-Gibbs(1986)와 Schober & Clark(1989)에서 관찰된 협응이론에 따른 것이었으며, 반복된 참조에 관한 고전적 연구인 Krauss와 Weinheimer(1964, 1966, 196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각 시행이 계속됨에 따라 그림의 순서를 맞추어 가는 평균 소요시간에서는 옛듣는 이가 있는 집단에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으나 두 집단 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14) = 1.975, p < .179$ ). 그러나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무의미 그림에 대한 정보가 실험 참여자들에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번 이상의 시행이 필요하므로 1·2시행을 합치고 3·4시행을 합쳐 각각 전반과 후반으로 만들고 평균 소요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변량분석해 본 결과, 시행의 후반부에서 옛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 옛듣는 이가 있는 집단 간의 차이의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F(1,14) = 6.493, p < .05$ ).

### 2. 의사소통에 사용된 단어마디수

각 집단 별로 지시자와 대화자가 무의미 참조대상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 각 대화에서 지시자와 대화자 모두에게서 각 그림당 사용된 단어 마디수를 세어 그 평균값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에서의 결과는 <표 1>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즉, 옛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 옛듣는 이가 있는 집단 모두 시행이 1회에서 4회까지 반복될수록 그림 순서 맞추기에 사용되는 단어 마디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표 2> 집단에 따른 대화의 길이(평균 단어 마디수)

시행/집단	엇듣는이없음	엇듣는이있음	평 균
1	24.90	29.70	27.29
2	17.93	19.70	18.81
3	10.80	16.29	13.54
4	9.82	11.63	10.73
평균	15.86	19.33	

변량분석한 결과, 시행이 계속됨에 따라 사용되는 단어의 마디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 $F(1,14)=6.493, p < .05$ ),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F(1,14)=2.191, p < .158$ ). 그러나 시행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시간에서 나온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행의 후반부에서 두 집단 간에 사용된 단어마디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F(1,14)=6.906, p < .05$ ). 즉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에서 후반부에 사용한 단어마디수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에서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은 엇듣는 이가 없는 집단에 비해 순서를 맞추어가는 데,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단어수를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엇듣는 이가 함께 하는 의사소통의 경우 후반부에서 엇듣는 이가 없는 조건과 비교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엇듣는 이가 의사소통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대화자와 엇듣는 이의 수행 정확도 비교

1회에서 4회에 걸친 시행 동안 전체 12장의 그림 순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었는가에 대한 대화자와 엇듣는 이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변량분석해 본 결과, 각 시행이 1회에서 4회까지 반복됨에 따른 정확도의 증가에서는 엇듣는 이나 대화자 모두 시행에 따라 정확도가 증가하였으며 시행의 주효과가 의미있었다 ( $F(3,42)=9.048, p$

$< .001$ ). 이는 대화에 사용된 시간과 단어마디수의 수행정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화자와 엇듣는 이의 전체 수행정도는 시행이 반복될 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에서 엇듣는 이와 대화자가 각기 지시자의 설명에 따라 그림의 순서를 맞추어 가는 정확도에서는 엇듣는 이에 비해 대화자의 수행 정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F(1,14)=6.044, p < .05$ ). 이는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에서, 엇듣는 이의 순서를 맞추어 가는 수행정도 즉, 정확도는 대화자보다 낮을 것이라는 가설(가설3)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즉 엇듣는 이는 시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대화자와 똑같은 공통지식을 지니게 되지만 협응의 노력을 기울일 수 없으므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의미 그림의 순서를 맞추어가는 전과정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엇듣는 이가 대화자보다 수행정확도가 낮은 것은 이야기 주고 받기(turn taking)의 영향이었다. 엇듣는 이는 이야기 주고 받기를 통해 지시자와 협응하여 공통배경을 형성해 갈 수 없으므로 대화에서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축적해 나가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엇듣는 이는 자신이 지시자와 대화자의 대화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도차 확인할 수 없으며 그것이 또한 이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에서의 이해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어려우며 대화 당사자들간의 이해를 위한 협응의 노력이 따라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의 의사소통 당사자들은 엇듣는 이의 존재를 대화 상황에 개입시킴으로서 엇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엇듣는 이가 대화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대화의 길이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아 엇듣는 이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후질문지를 분석해 보면, 엇듣는 이 스스로 지시자가 자신을 의식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엇듣는 이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더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지시자의 대답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화자와의 대화에만 신경을 쓰느라 엇듣는 이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였다는 지시자의 대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실험 1에서는 엇듣는 이가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과제수행을 위한 대화에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수행시간도 길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엇듣는 이가 있으면 대화 당사자들의 수행정도가 더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엇듣는 이가 지시자와 친숙하다면 친숙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시자의 태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시자가 엇듣는 이와 친숙할 경우에는 이전에 형성된 공통배경에 기초한다면 친숙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구태여 더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친숙한 엇듣는 이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화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 실험 2에서는 지시자가 엇듣는 이와 친숙한 경우와 전혀 모르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실 험 2

본 실험에서는 실험 1의 집단 2와 마찬가지로 세 명의 모르는 사람이 무의미 그림의 순서를 맞추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엇듣는 이가 지시자와 어느 정도 공유 정보를 많이 가진 친숙한 사람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수행정도를 분석하였다.

### 방 법

**피험자.** 충북대학교에 재학중인 「심리학 개론」 수강생 중에서 48명이 피험자로 참여하였다. 집단 1(이하 친숙 집단)은 두 명의 친숙한 사람과 한 명의 모르는 사람으로 3명씩 짝지어진

8그룹의 24명이었으며, 집단 2(이하 비친숙 집단)는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3명씩 짝지어진 8그룹의 24명이었다. 피험자들은 서로 다른 강좌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 실험시간을 미리 약속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친숙한 집단의 경우, 실험시간을 약속한 한 피험자에게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을 함께 데려오게 하였다. 본 실험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차가 관심사가 아니므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와 유사한 실험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다.

**재료 및 절차.** 실험 1과 같았다.

**설계.** 본 연구는 2(집단) × 2(대화자/엇듣는 이) × 4(시행) 설계로, 독립변인 중 집단 변인은 엇듣는 이가 지시자와 친숙한 집단과 비친숙한 집단이며, 집단에 따라 대화자와 엇듣는 이에 따른 시행의 차이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그림 순서맞추기에 걸린 반응시간과 어휘수, 그리고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대화에 관한 내용분석과 함께 시간, 어휘수에 따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엇듣는 이의 친숙·비친숙 여부와 엇듣는 이·대화자가 집단간 변인이며 4회에 걸친 각 시행이 집단내 변인이었다.

### 실험 2의 가설

**가설 1 : 공통배경 공유가설** : 지시자는 엇듣는 이와 이미 형성된 공통배경이 있다고 가정하여 구태여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화자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정보를 주어도 친숙한 엇듣는 이는 알아들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시자와 엇듣는 이가 친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친숙한 집단 사이에서 소통 과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단어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 친숙도 유지 가설** : 지시자는 엇듣는 이가 친숙한 경우 이를 의식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자와 엇듣는 이가 친숙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비친숙한 집단

보다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분석 방법.** 실험 1과 같았다.

## 결과 및 논의

실험 2에서는 옛들은 이와 대화자가 친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친숙 집단에서 의사소통 수행 정도를 비교하였다.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옛들은 이와 대화참여자가 소통에 사용한 단어 수와 시간, 수행 정확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 1. 의사소통에 사용된 시간

두 집단의 옛들은 이와 대화자가 각 그림 당 정확히 순서를 맞추는 데 걸린 평균시간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 집단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단지 두 집단 모두에서 옛들은 이와 대화자가 정확하게 반응하는데 걸린 평균시간은 의미있는 차이가 나왔으며( $F(1,28) = 5.332, p < .05$ ), 시행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정도도 유의미하였다( $F(3,84) = 40.819, p < .001$ ).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의미있게 나오지 않았다. 단지 친숙한 집단의 옛들은 이는 비친숙 집단의 옛들은 이보다 정확한 반응에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옛들은 이와 정확하게 반응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을 두 집단에서 전·후반부로 비교해 본 결과, 전반

부에서 친숙한 경우에 약간 시간이 더 걸리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실험 1과는 달리 실험 2에서는 각각의 그림을 맞추는 데 따른 반응 시간을 실험보조자를 이용해 대화자와 옛들은 이 각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와 같이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무의미 그림에 대한 참조를 형성하는 경우, 그림의 난이도가 주는 주의의 효과가 너무 크므로 옛들은 이의 친숙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2. 의사소통에 사용된 단어마디수

지시자와 대화자가 각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마디수의 평균을 지시자 대화자로 나누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는 의미있게 나오지 않았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시자와 대화자의 친숙도가 무의미 그림의 순서를 맞추어 가는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각 집단에서 대화자와 옛들은 이의 수행 정확도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화자와 옛들은 이의 수행 정확도를 측정해 보았다. 전체 시행에서 두 집단이 한 정확한 반응을 분석해보면 옛들은 이와 지시자가 친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즉, 옛들은 이 두 집단 사이에서 보이는 정확도나 대화자 사이에서 보

<표 3>. 각 그림 당 정확한 반응에만 걸린 평균시간(초)

시행/역할	친숙		비친숙	
	옛들은이	대화자	옛들은이	대화자
1	21.55	14.74	19.79	14.99
2	16.80	14.40	13.37	11.37
3	9.70	8.90	9.98	9.07
4	8.06	6.50	7.58	7.15
평균	14.03	11.14	12.68	10.65

이는 정확도 모두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친숙한 집단의 옛들은 이가 비친숙집단의 옛들은 이보다 시행의 전반부에서 수행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4〉 지시자와 대화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말한 평균 단어 수

	친숙	비친숙
지시자	16.61	15.98
대화자	3.38	3.33

그러나 각 집단에서 옛들은 이와 대화자 간에는 과제 수행의 정확도에 있어 대화자가 더 정확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28)=8.556, p < .01$ ). 또한 시행이 반복됨에 따라 더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F(3,84)=5.485, p < .01$ ).

본 실험에서 검증해보고자 한 두 가지 가설은 공통배경 가설과 친숙도 유지 가설이었다. 공통배경 공유가설(common ground sharing hypothesis)로 생각해 본다면, 지시자와 옛들은 이가 친숙하면 이전에 형성된 공통배경이 참조대상에 관한 서로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므로 참조 대상에 관한 설명이 짧아져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시자와 옛들은 이가 친숙한 조건에서도 지시자는 옛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단지 대화자와 함께 과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안이 되는 가설이 친숙도 유지 가설(familiarity maintenance hypothesis)이었다. 즉, 지시자와 옛들은 이가 친숙하면 지시자는 아무런 피드백도 요구할 수 없는 옛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화자 뿐만 아니라 옛들은 이에게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시자는

옛들은 이가 친숙한 조건에서는 옛들은 이가 친숙하지 않은 조건에 비해 더 많은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실험 2의 결과, 지시자와 옛들은 이가 친숙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비친숙한 집단과 비교해볼 때 순서를 맞추는 데 사용된 시간과 단어 수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친숙도 유지 가설 보다는 공통배경 공유가설이 더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시자와 대화자의 친숙도가 무의미 그림의 순서를 맞추어 가는 의사소통 과제 수행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지시자와 옛들은 이 자신의 공통배경에 기초해서 옛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 공통배경 공유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험 2의 결과는 공통배경 공유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미 형성된 공통배경으로 인하여 지시자는 친숙한 옛들은 이에게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화에서 지시자와 옛들은 이가 친숙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비친숙한 집단에 비해 순서를 맞추는 데 사용하는 시간과 단어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과제에서는 지시자와 옛들은 이의 친숙도는 이전에 형성된 공통배경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 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 그림에 대해 두 대화 당사자가 공통참조를 만들 경우, 옛들은 이가 개입하면 두 사람의 의사소통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옛들은 이의 수행 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Clark은 옛들은 이가 있는 대화 상황에서 지시자가 옛들은 이에게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태도를 소개하였다. 지시자는 더 분명히 말하거나

(disclose), 숨기거나(conceal), 위장하는(disguise)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또는 엿듣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Clark & Carlson, 1982; Clark & Schafer, 1987b).

Schober & Clark(1989)은 지시자가 엿듣는 이를 개의치 않을 경우를 상정하고 엿듣는 이의 수행정도 만을 비교하는 의사소통 실험을 하였다. 결과, 엿듣는 이는 대화자에 비해 수행이 뒤떨어졌다. 또한 Clark & Shaefer(1987)는 지시자와 대화자가 엿듣는 이에게 대화 내용을 숨기려고 의도하는 조건을 만들어 엿듣는 이의 수행정도과 직접적인 대화당사자의 수행을 비교해 보았다. 결과, 숨기기 조건에서는 직접적인 대화당사자들이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엿듣는 이의 수행은 대화자에 비해 낮았다.

본 실험에서는 지시자가 엿듣는 이를 의식하여 엿듣는 이가 없는 조건에 비해 엿듣는 이가 있는 조건에서는 엿듣는 이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험 1은 지시자(말하는 이)와 대화자(듣는 이)의 수행정도를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사용한 단어수로 측정하여 엿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결과, 엿듣는 이가 있는 집단이 엿듣는 이가 없는 집단에 비해 시행의 후반부에서 그림의 순서를 맞추는 데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엿듣는 이의 수행정도 즉, 그림 순서 맞추기의 정확도는 대화자보다 낮았다. 즉, 대화자들은 대화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만 엿듣는 이를 의식하는 것이 분명하며, 대화당사자들이 엿듣는 이가 있는 조건에서 더 많은 단어수와 더 많은 시간을 대화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엿듣는 이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당연한 결과 같지만 엿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 엿듣는 이가 있는 집단 모두 4회에 걸쳐 시행이 반복될수록 의사소통에 소요된 시간과 단어수는 줄어들었으며 정확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화

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말 주고 받기 통로를 통해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유정보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단지 대화의 모든 내용을 듣는 것 만으로는 전체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Schober & Clark(1989)의 실험에서 피험자를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한 것은 피험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공통배경에 대한 가정 때문이다. 대화는 듣는 것 자체만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 당사자들의 공통배경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협동적 관점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었다. 두 대화 참여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배경에 엿듣는 이는 끼어들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엿듣는 이와 지시자가 친숙한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형성된 공통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 지시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자 하였다.

의사소통에서 엿듣는 이가 지시자와 친숙한 경우, 엿듣는 이가 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두 가지 가설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공통배경 공유가설(common ground sharing hypothesis)에 의하면 이전에 형성된 공통배경에 기초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곧 지시자는 친숙한 엿듣는 이를 위해 특별히 더 많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엿듣는 이가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엿듣는 이에게 더 신경쓰지 않고 보통 때 처럼 대화자와 함께 과제 수행을 할 것이다. 반면, 친숙도 유지가설(familiarity maintenance hypothesis)에 따라 생각해 본다면, 지시자는 친숙한 엿듣는 이에게 그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곧 친숙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경 써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다른 때(친숙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더 많은 말을 할 것이고, 따라서 과제 수행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실험 2의 결과, 지시자와 엿듣는 이가 친숙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비친숙한 집단과 비교해 순서를 맞추는 데 사용된 시간과 단어수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곧, 서로가 가진 공통배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시자와 엇듣는 이가 친숙한 조건에서 지시자는 엇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대화자와 함께 과제 수행을 할 것이라는 공통배경 공유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사후 질문지에서 보면, 친숙한 엇듣는 이가 이전에 형성된 공통배경에 기초해 충분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제를 수행했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친숙한 조건의 엇듣는 이가 비친숙한 조건의 엇듣는 이에 비해 과제 수행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므로, 실험 2의 결과로 공통배경 공유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지지 증거가 필요하다.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과제 수행에 사용된 시간과 단어수를 지시자와 대화자를 합하여 보았으나, 지시자와 대화자의 수행에 어떤 차이가 보이지 않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해 보았다. 시간으로는 두 대화 당사자의 몫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추가 분석에는 대화에 사용된 단어마디수의 평균을 지시자와 대화자 각각으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변량분석해 보았다. 결과, 지시자들이 사용한 단어수에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화자들이 사용한 단어수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1,14)=9.538, p < .01$ ).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지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의 대화자가 엇듣는 이가 없는 집단의 대화자보다 더 많은 단어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시자보다는 대화자가 엇듣는 이를 더 많이 대화에 개입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의도는 엇듣는 이보다 좀 더 수행을 잘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또는 엇듣는 이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또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업무 수행을 증진시킨다는 사회적 촉진 효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Sanders와 그의 동료들은 간단한 일을 할 때는 타인의 존재가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작업수행이 촉진되지만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는 업무수행이 촉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anders, 1981a ; Sanders & Baron, 1975 ; Sanders, Baron & Moore, 1978). Sanders는 이런 설명을 주위산만 갈등이론 (distraction conflict theory)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러한 이론으로 본 실험의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탠그램이라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무의미그림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으므로 과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의 경우 엇듣는 이가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과제수행에 방해가 되어 후반부에 더 많은 단어수를 사용하여 더 오랜 수행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 이러한 대화자 요인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변인이었지만 앞으로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엇듣는 이가 있는 또 다른 대화 상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대화당사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느 시점에서 엇듣는 이가 끼어드느냐에 따라서 세 사람 모두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는 이는 엇듣는 이를 위해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이끌어낼 수도 있고, 오히려 대화자가 엇듣는 이를 위해 지시자가 빠뜨린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엇듣는 이가 대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성취도가 듣는이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오히려 대화자는 엇듣는 이를 경쟁상대로 의식하여 대화자에게 잊점이 되는 질문을 않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엇듣는 이가 없는 집단과 엇듣는 이가 있는 집단 모두 시행이 반복될수록 의사소통에 소요된 시간과 단어수는 줄어들었으며, 정확도는 증가하였으므로 시행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그림 순서 맞추기의 수행정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에서 공통배경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Clark & Wilkes-Gibbs(1986)와

Schober & Clark(1989)에서 관찰된 협응이론에 따른 것이었으며, 반복된 참조에 관한 고전적 연구인 Krauss와 Weinheimer(1964, 1966, 196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옛들은 이 변인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단지 옛들은 이의 수행정도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옛들은 이가 있고 없음에 따른 비교를 통해 옛들은 이가 있는 집단의 대화 수행정도가 옛들은 이가 없는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단어수와 긴 시간을 사용함을 입증하여 옛들은 이가 실제로 대화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시자와 옛들은 이가 친숙한 경우,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는 공통배경이 의사소통 과제에서 새로운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그들이 이전에 형성한 공통배경에 기초해 대화는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과제에 따라서 또는 옛들은 이 변인을 조작하는 실험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은 단순히 발화되는 내용을 듣고 그것만을 부호화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는 자율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으며, 결코 개인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한 개인에 관한 내적 접근이 아닌 상호적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옛들은 이가 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시자의 설명방식의 변화였다. 사후 질문지를 통해 옛들은 이의 존재를 의식한 정도를 질문하였을 때, 지시자 중 몇몇은 자신과 친숙한 옛들은 이가 그림의 순서 맞추기를 어려워 하거나 할 경우 안타까웠지만 과제 수행이 어려워 신경을 쓸 수 없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몇몇 피험자들 역시 그림이 이전에 접할 수 없었던 난해한 무의미 그림이었으며, 상대방과 그림에 대한 공유정보들을 새로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옛들은 이를 의식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과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시자 변인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제를 좀더 쉽게 하거나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실험을 실시하면 좀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이희란, 김유경, 이승복, 김영진(1994). 이야기식 계열 구조와 의사소통 전략.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
- Asher, S. R. (1979). Referential Communication. Grover, J. Whitehurst & Barry, J. Zimmerman (Eds), *The Functions of Language and Cognition* (pp. 175-191). Academic Press.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Carroll, J. M. (1985). *What's in a name? An essay in the psychology of reference*. New York : Freeman
- Clark, H. H. (1985). Language use and language users.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I (pp. 179-231). N. Y. : Random House.
- Clark, H. H., & Carlson, T. B. (1982a). Hearers and speech acts. *Language*, 58, 313-330.
- Clark, H. H., & Carlson, T. B. (1982b). Speech Acts and Hearers' Beliefs. In N.V.Smith(Ed.), *Mutual knowledge*(pp. 1-36). London : Academic Press.



- Clark, H. H., & Marshall, C. R. (1981). Definite reference and mutual knowledge. In A. K. Joshi, B. Webber and I. A. Sag(Eds.), *Elements of discourse understanding* (pp. 10-6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H. H., & Schaefer, E. F. (1987b). Concealing one's meaning from overhearer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6, 209-225.
- Clark, H. H., Schreuder, R., & Buttrick, S. (1983). Common ground and the understanding of demonstrative reference.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2, 245-258.
- Clark, H. H., & Wilkes-Gibbs, D. (1986). Referring as a collaborative process. *Cognition*, 22, 1-39.
- Cohen. P. R (1984). The Pragmatics of referring, and the modality of communication. *Computational Linguistics*, 10, 97-146.
- Fussell, S. R & Krauss R. M. (1989). The effects of Intended audience on Messag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Reference in a Common Ground Framewor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203-219.
- Garrod, S. & Anderson, A. (1987). Saying what you mean in dialogue: A study in conceptual and semantic co-ordination. *Cognition*, 27, 181-218.
- Glucksberg, S., Krauss, R. M., & Higgins, E. T. (1975). The development of referential communication skills. In F. E. Horowitz(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4, pp. 305-345). Chicago:Univ. of Chicago Press.
- Grice, H. P. (1968). Utterers meaning, sentence-meaning, and word-meaning. *Foundations of Language*, 4, 225-242.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pp. 225-242). New York : Seminar Press.
- Grice, H. P. (1978). Some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Ed.), *Syntax and semantics*, Vol. 9: *Speech acts*(pp. 113-128). New York : Academic Press.
- Higgins, E. T. (1981). Implications for Social Cognition and Persuasion. E. Tony Higgins, C.Peter Herman, Mark.P.Zanna(Eds), *Social Cognition : The Ontario Symposium*, Vol.1(pp. 343-393).
- Isaacs, E. A., & Clark, H. H. (1987). References in conversation between experts and novic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General*, 116, 26-37.
- Kingsbury, D. (1968). Manipulat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a person giving directions. Unpublished Honors Thesi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Kmajian, A. A., & Demers R. A. and Harnish R. H. (1984).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to Language of*

communication. MIT.

- Krauss, R. M., & Fussell S. R. (1991). Constructing shared communicative environments. L. B. Resnick, J. H. Levine, S. D. Teasley. (Eds), *Perspectives on Socially shared cognition*(pp. 173-20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Krauss, R. M., & Glucksberg, S. (1969).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 Competence as a function of age. *Child Development*, 40, 255-256.
- Krauss, R. M., & Glucksberg, S. (1977). Social and nonsocial speech. *Scientific American*, 236, 100-105.
- Krauss, R. M., & Weinheimer, S. (1964). Changes in reference phrases as a function of frequency of usage in social interaction : A preliminary study. *Psyconomic Science*, 1, 113-114.
- Krauss, R. M., & Weinheimer, S. (1966). Concurrent feedback, confirmation, and the encoding of referents in verbal commun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343-346.
- Krauss, R. M., & Weinheimer, S. (1967). Effect of referent similarity and communication mode on verbal encoding.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6, 359-363.
- Krauss, R. M., Vivekananthan, P. S., & Weinheimer, S. (1968). Inner speech and external speech :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effectiveness of socially and nonsocially encoded mess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95-300.
- Kraut, R. E., Lewis, S. H., & Swezey L. W. (1982). Listener Responsiveness and the Coordination of Convers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718-731.
- Levelt, W. J. M. (1983). Monitoring and self-repair in speech. *Cognition*, 14, 41-104.
- Olson, D. R. (1970). Language and thought : Aspects of a cognitive theory of semantics. *Psychological Review*, Vol 77, No(4). 257-273.
- Sacks, H., Schegolff, E. A., &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in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 Sanders, C. S. (1981). Driven by distraction : An integrative review of social facilitation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227-251. (a)
- Sanders, G. S., & Baron, R. S. (1975). The motivating effects of distraction o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nality Social Psychology*, 32, 956-963.
- Sanders, G. S., Baron, R. S., & Moore, D. L. (1978). Distraction and social comparison as mediators of social facilitation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 Psychology*, 14, 291-303.
- Schank, R. C., & Abelson, R. (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egloff, E. A. (1987). Some sources of misunderstanding in talk-in-interaction. *Linguistics*, 25, 201-218.
- Schegloff, E. A., Jefferson, G., & Sacks, H. (1977). The preference for self-correction in the organization of repair in conversation. *Language*, 53, 361-382.
- Schober, M. F., & Clark, H. H. (1989). Understanding by addressees and overhearers. *Cognitive Psychology*, 21, 211-232.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Stalnaker, R. C. (1978). Assertion. In P. Cole(Ed). *Syntax and semantics*, Vol. 9:Pragmatics(pp. 315-332).
- Van Dijk, T. A. (1984). *Cognitive Constraints on communication : representations and processes*. Lucia Vaina & Jakko Hintikka(Eds) *Dialogue and Cognition*. Publishing company, Dordrecht, Holland.

## The effects of overhearer's presence in referential communication

Lee, Heeran and Lee, Seungbo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verhearer's effect in referential communication. In the first experiment, we examined whether director's performance was affected by overhearer's presence itself. We examined triples of people in which one person told another person in conversation how to arrange 12 complex figures while an overhearer tries to arrange them too. All three began as strangers with the same background information. As predicted, addressees were more accurate at arranging the figures than overhearers although the two shared the same information. The result showed that addressees in the nonexistence condition spend more time and made longer sentences than the existence condition. The second experiment was about the familiarity effect. Two alternative hypothesis was tested. The first hypothesis, "familiarity maintenance hypothesis" assumes that if the overhearer is familiar with the director, the director will use more words to help the overhearer. The alternative hypothesis, "common ground sharing hypothesis", assumes that the director will show no difference in both condition.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performance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ditions, so the common ground sharing hypothesis was supported. The effect of overhearer's existence and the commonground sharing hypothesis showed that even the same information was provided, active participant(addressees) performance was better than passive participant(overhearer). It implies that to be successful communication, active collaboration was needed in addition to the appropriate information.